

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절차 돌입...6월 최종 지정

- 13일 충북에서 특화단지 설명회 개최, '예비검토제' 첫 도입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기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지방정부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검토 위원들이 정책 적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서면·현장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경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책임자 | 과 장 | 김정두 (044-203-4920) |
| | | 담당자 | 서기관 사무관 | 박한기 (044-203-4927) 안호연 (044-203-4922) |



- 일 시 : '26.1.13일(화), 14:00 ~ 15:00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203호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로 250
- 참석대상 : 산업부, KIAT, 특화단지 지정희망 지역 및 관련 기업
- 설명회 개요
 - ① 소부장 특화단지 개요 발표
 - ②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관련 질의 응답
- 행사 세부 내용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14:00~14:02 | (2') | 개 회 | |
| 14:02~14:05 | (3') | 모두발언 | |
| 14:05~14:15 | (10') | 소부장 특화단지 개요 발표 | |
| 14:15~14:58 | (43') | 질의 응답 | |
| 14:58~15:00 | (2') | 마무리발언 | |